

천국은 마치

6강. 포도원 품꾼 비유(마태복음 20:1-16)

돌아보기

1.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잠시 돌아본다면?
2. 지난 강의 때 기억에 남는 것은?
3. “포도원 품꾼 비유”를 읽고 느낀 점은?

📖 '포도원 품꾼 비유'(마 20:1-16) 읽기

- 개역개정 → 새번역 → 새한글 → 메시지 성경 등 다양한 번역으로 읽어

📖 '포도원 품꾼 비유'에 나오는 등장 인물과 장치

- 포도원, 품꾼, 집 주인
- 한 데나리온(하루 품삯)
- 이른 아침, 제삼시(오전 9시), 제육시(정오), 제구시(오후 3시), 제십일시(오후 5시)

📖 '포도원 품꾼 비유'의 문맥

- 마 19:16-30 :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 :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 마 20:1-15 포도원 품꾼 비유
- 마 20:6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 마 20:17-19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고

📖 주후 1세기의 상황

- 포도는 밀과 더불어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농작물, 성경에는 포도원과 관련된 말씀이 너무 많다.
(왕상 21:1, 사 5:1, 렘 52:16)
- 고대로부터 포도주를 음료로 마셔왔다. 그날도 포도주를 마셨고, 포도원을 지나가셨다.
-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며 절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 품삯은 그날 지불해야 한다.(레 19:13)

📖 '포도원 품꾼 비유'

-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납득할 수 있는가? 일 잘하는? vs 놀고 있는 품꾼?
-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노동력 구입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원의 사업을 하는 주인
-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vs 약 10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 포도원 주인은 공정한가? 불공정한가? 종일 수고한 품꾼의 불만은 이유 있는 불만인가?
-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함을 알고 경제적인 원리가 아닌 필요에 따라 임금을 지불한 주인
- 선한 눈을 가진 주인 vs 악한 눈을 가진 품꾼

-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 요나 선지자?
- 포도원 주인: 하나님, 죄인들과 이방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 등의 유대 지도자들
-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
- 포도원 품꾼 비유 →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천국(하나님의 나라)은 각자의 노력이나 공로, 순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자 같은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다음 강의(11/9)] 마태복음 22:1-14 “혼인 잔치 비유”

[새번역 성경]

혼인 잔치의 비유

1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3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4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5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6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7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8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9 그러니 너희는 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10 종들은 큰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11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물기를,
12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13 그 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4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새한글 성경]

결혼 잔치 비유

1 이어서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2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의 경우와 같소. 그가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 잔치를 베풀었소.
3 그리고 자기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을 결혼 잔치에 불러오게 했소. 그런데 그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았소.
4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며 말했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자, 내가 잔치를 마련해 놓았네. 황소와 살진 송아지들을 잡아 놓았어. 준비가 다 됐네. 이제 결혼 잔치에 오게나.]’
5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꾀등으로 듣고 가 버렸소. 어떤 이는 자기 농장으로, 또 어떤 이는 장터로 말이오.
6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소.
7 그러자 임금은 화가 치밀었소. 그래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 저 살인자들을 없애 버렸고 그들의 도시는 불태워 버렸소.
8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말한대요. ‘결혼 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었다.
9 그러니 여기저기 주요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결혼 잔치에 초대해라.’
10 저 종들이 길로 나가서 만난 사람을 모두 데려왔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말이오. 마침내 기대앉아서 먹는 사람들로 결혼 잔치 자리가 가득 찼소.
11 기대앉아서 먹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임금이 들어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결혼 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소.
12 임금이 그 사람에게 말한대요. ‘이 친구야, 결혼 잔치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오다니, 어떻게 된 건가?’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소.
13 그때에 임금이 잔치의 시종꾼들에게 말했소. ‘그의 발과 손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라. 거기서 그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이다.’
14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이오.”

[메시지 성경]

결혼 잔치 이야기

1-3 예수께서 이야기를 더 들려주시면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 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은 종들을 보내 초대받은 손님들을 모두 부르게 했다. 그런데 손님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다!
4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며,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했다. ‘식탁에 진수성찬을 차려 놓았으니, 오셔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5-7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하고 가 버렸다. 한 사람은 밭에 김매러 갔고, 또 다른 사람은 가게에 일하러 갔다.
딱히 할 일도 없었던 나머지는, 그 심부름꾼들을 두들겨 패서 죽였다.
왕은 격노하여 군인들을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쓸어버렸다.
8-10 그리고 나서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손님이 없구나. 내가 초대했던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시내에서 가장 번잡한 거리로 나가,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로 나가 착한 사람, 못된 사람 할 것 없이 아무나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왔다. 드디어 자리가 다 차서, 잔치가 시작되었다.
11-13 왕이 들어와 장대를 둘러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었다.
왕이 그에게 말했다. ‘친구여, 감히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명했다. ‘이 사람을 여기서 당장 끌어내라. 묶어서 지옥으로 보내라. 절대로 다시 오지 못하게 하여라.’
14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